

■ 정운찬 청문회 불꽃 튀길 쟁점은

“세종시 행정 비효율” 최대 이슈될 듯

고령 병역면제·논문 중복게재 의혹 뇌관으로 아파트 토지가격 8억여원 낮게 신고 논란도



21~22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정부 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열리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에서 여야 간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병역 논란, 세금 탈루 의혹 등은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 등 국정철학=정 후보자가 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3일 세종시 건설 수업을 시사한데 이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세종시 문제는 청문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총리 인준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치공방으로 치달는 흐름을 막으며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역 의혹=정 후보자가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대학 1학년이던 지난 66년 신체검사를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68년 ‘부선량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

인 외아들)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70년 재검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것을 둘러싸고 고의적인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또, 민주당 등 야권은 정 후보자가 지난 70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것을 놓고도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기재”라며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인 등 부동산=정 후보자가 부인이 지난 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로 옮겼다가 같은 해 4월 다시 원래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한 것을 놓고 야권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자 부인이 포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만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정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힌 ‘다운계약서’를 작성,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릴 태세다.

현재 살고 있는 방배동 아파트와 관련, 구매 당시 토지가격을 실제 매가가(9억9천500만원)보다 훨씬 적은 1억4천4천만원으로 정부에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논문 중복게재=야권은 정 후보

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00년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 등 논문 이중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 후보자가 ‘에스24’ 고문을 지내면서 2007~2008년 2년간 소득 6천여만에 대해 합산소득신고

누락한 의혹을 비롯해 인세와 강연료, 원고료 등 일부 부수수입 미신고 등에 따른 소득세 탈루 의혹도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정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불출마... 여야, 재보선 제도수정?

민주당이 수원 장안 출마에 공을 들여온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한편 한나라당은 10월 재보선 후보를 대부분 확정하면서 선거 레이스에 시동을 걸 태세다.

민주당이 수원 장안 출마에 공을 들여온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한편 한나라당은 10월 재보선 후보를 대부분 확정하면서 선거 레이스에 시동을 걸 태세다.

손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라는 글을 통해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한다”며 “수원 장안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내 한몸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지난 4월 재보선에 이어 연승을 하겠다는 민주당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손 전 대표의 불출마는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동에 거물을 내세워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선거

전략 전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출마 요구에 대해 “손학규가 나가 이겨서 민주당을 살린다는 생각에 공감할 수가 없었다”며 “손학규는 민주당 전체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서, 거름으로서, 방편으로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명도와 지지도가 높은 ‘거름’로 당장의 전투를 이기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가올 더 큰 전쟁을 이기는 길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찬바람을 맞고, 험한 길을 헤쳐며 처절한 각오로 자기단련을 해야지 보약으로 당장 기력을 회복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모지와 다름없는 경남 양산의 경우 친노 인사인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 후보로 내정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비서관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30%대의 득표를 달성할 정도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만큼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원도 강릉의 경우엔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우선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에 각각 박희태 전 대표와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천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여론조사 및 적극투표층 판별분석 결과, 박 전 대표와 권 전 비서관이 다른 경쟁후보보다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양산의 경우 김양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한나라당 지지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동의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던 ‘빅 매치’가 어려워지면서 한나라당이 기회를 잡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도부 러브콜에 꿈쩍 않는 박근혜

10월 재보선 지원 나설지 관심

야당 시절 게임한 모든 재보선에서 승리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월 재보선에서 지원유세에 나설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곳의 10월 재보선 선거구 가운데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은 ‘박풍(朴風)’의 직접적인 영향권이다. 그의 지원은 곧바로 승리를 의미할 정도다. 때문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답을 피하고 있다. 선거는 책임 있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박 전 대표의 광상시 생각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 재보선에서도 잇따르는 당의 구원 요청을 무로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0월 대구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에게 “선거에 간여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

요”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되자 친박(친 박근혜) 진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재보선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거의 사라졌다.

한 핵심 의원은 20일 “수차례 ‘개입 안하겠다’고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 이런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8일 강원도 강릉 재선거의 공천심사에서 친박의 심재전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7~15%포인트 밀려 공천에서 탈락하자 박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은 거의 물 건너 간 것으로 친박계는 보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복당 및 당협위원장 문제에 예선 양산의 박희태 후보에게는 일부 친박 의원들이 개인적인 ‘보은’ 차원에서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미애 “임태희 청문회 내일 개최”

개회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민주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를 22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로 예정과 있었으나 추 위원

장은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법 관련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 파행이 계속됐다.

추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원내 대표간 합의의 일종으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한나라당에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책임정치를 모르쇠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책임정치를 입증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지역주의 극복위해 버릴 것 버리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민주개혁 진영이 영남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작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지역주의가 극복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열린 ‘언론약법 원천무효 규탄대회’ 및 경남도당-전남도당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개혁 논의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릴 것이고, 한나라당도 함께 버리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고(故) 김대중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평생 어떻게 동서화합을 이뤄낼지 고민했다”며 “앞으로 지역주의는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봉직 대특약직

소방직 전문학원

국채유일 시험장과 동렬 소방채력특강기 도입

소방채력특강기 무료체험

가장양재적인 수검료 + 교재 5원 무료

6개월 합격특강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채력특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232-0232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학원선수는 실적입니다.

2009년 국가직 388명 합격
2009년 서울시 지방직 209명 합격
2009년 전남지방직 99명 합격
2009년 광주지방직 119명 합격
2009년 경기지방직 127명 합격
2009년 합격자 한빛대거출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사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강 10월 5일

종합/단과반 (호남유일 특수반 첫선도!)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9월야간반

= 호남유일 야간반 개설 =

첫개강 >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50

- 기초부터 심화이론
- 체계적인 학습단계
- 합격 논스름강좌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